

【논 문】

감성으로 기억하는 만주*
- 만주 소재 대중가요 가사를 중심으로 -

곽 은 희**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감성
- III. 간극과 틈 : ‘프로파간다’와 ‘실존’ 사이
- IV. 슬픔의 감성과 윤리적 지평
- V.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만주’라는 장소가 대중들의 마음에 닿을 내리고 그 마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억 속에 잔존하고 있는 만주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데 착안하여, 만주가 동시대 사람들의 ‘감성’과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추적하였다. 이 작업은 주로 1937년 이후 발표된 만주 소재 대중가요를 분석하면서 진행되었다.

대중가요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양상은 프로파간다 메커니즘과 공존하고 있는 실존의 굴곡들을 포착하는 데 있다. 이 간극은 당대의 실존이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으로 균질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국의 문화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순적인 지대’를 보여준다.

대중가요는 그것이 인간의 무수한 감정을 담은 장르라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조망, 전체로서의 통계 수치가 아우를 수 없는 만주의 모습에 근접해

* 이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4-28)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가요가 실존의 현장을 얼마나 뾰족하게 담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대중가요라는 경로를 경유할 때 만주에 대한 기억은 조각으로 구성된 콜라주에 가깝다. ‘감성’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기억 이미지들의 틈새를 흘러다니며 만주에 대한 기억을 한 편의 콜라주로 만든다. 콜라주를 통해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도달한 ‘다른 공간’이 정말 헤테로토피아인지를 ‘감성’이 감지한 덕분이다.

주제어 : 만주, 대중가요, 감성, 헤테로토피아, 프로파간다, 실존, 슬픔, 윤리, 공감, 공동체적 감성

I. 들어가며

모든 사고의 근원은 우리의 감각(sense)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¹⁾

- 토마스 홉스

이 글은 ‘만주’라는 장소가 대중들의 마음에 닿을 내리고 그 마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억 속에 잔존하고 있는 만주 이미지를 ‘감성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데 착안하여, 만주가 동시대 사람들의 ‘감성’과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각종 매체에서 만들어진 낙토(樂土)로서의 만주 이미지가 ‘만주 이주’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감성’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감성’은 정서적 공감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하나로 묶어주고 애착을 형성한다. 만주에 대한 기대와 애착, 욕망과 열정은 ‘감성’을 통해 전달된다. ‘감성’은 의식과 행위 사이의 지렛대이자 중심축²⁾으로서, 만주행을 결

1) Thomas Hobbes of Malmesbury · 진석용 옮김, 2008, 『리바이어던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제1책, 나남, 27쪽(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l*, printed for Andrew Crooke, at the Green Dragon in St. Pauls Church-yard).

행하는 과정에도 만주로부터 귀환하는 과정에도 개입된다.

‘감성’은 주체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다양한 감정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느낌·감정·정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때 감성은 단순히 마음에 상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감성은 언제든지 발현 가능한 에너지의 차원으로 존재하며,³⁾ 그 역동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타자의 현존에 민감할 수 있게 하는 윤리적인 지대가 되기도 하고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전략적인 지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은 1937년 이후 발표된 만주⁴⁾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의 가사⁵⁾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풀어갈 것이다.⁶⁾ 대중가요라는 장르를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시킨 까닭은 ‘만주 열광’이라는 사회적·문화적 현상은 ‘감성

- 2) Tia Denora · 정우진 옮김, 2012, 『아도르노 그 이후 : 음악사회학을 다시 생각한다』, 한길사, 199쪽(2003, *After Adorno : rethinking music sociolog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 이 글에서 감성의 정의와 역동성에 대해서는 조태성, 2010, 「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파장 혹은 스펙트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연구』 장간호, 33~44쪽을 참조함.
- 4) 연구 대상 텍스트가 되는 ‘만주 소재 대중가요’를 추출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유성기음반총람자료집』과 『유성기음반 가사집』을 대상으로 노래 가사와 제목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된 노래들을 검색하여 추출한 뒤 음원과 작사·작곡의 배경을 확인하였다(분석 대상 추출 기준 단어 : ‘만주’, ‘썰매’, ‘북극’, ‘북극’, ‘북방’, ‘오국’, ‘국경’, ‘간도’, ‘시베리아’, ‘압록강’, ‘복단강’, ‘송화강’, ‘몽강’, ‘만포선’, ‘오로라’, ‘할빈’, ‘하루빈’, ‘북만선’, ‘북간도’, ‘북지’, ‘망루’).
- 5) 음반제작사마다 자신들이 제작 발표한 음반을 소개 광고하는 ‘가사지(歌詞紙)’를 발간했으므로 유성기 음반의 가사는 활자화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쳤다. 가사지는 제작기 분리된 상태로 흩어져 시집이나 잡지처럼 지속적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희귀한 문화사적 자료이다(이동순, 2010. 12, 「일제강점기 가요시 장르의 문화사적 가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0, 210쪽).
구인모에 의하면, 문인들의 유행가요 가사 창작은 식민지 시기 시인들에게 시와 시 창작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일으켰다(구인모, 2013, 『유성기의 시대 유행시인의 탄생 : 시와 유행가요의 경계에 선 시인들』, 현실문화, 59쪽).
- 6) 만주 소재 대중가요의 가사는 다음 자료집을 참조함.
김점도 편저, 2000, 『유성기음반총람자료집 : 1907년부터 1943년까지』, 신나라뮤직.
이보형 · 홍기원 · 배연형 편저,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1』, 민속원.
이보형 · 홍기원 · 배연형 편저,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2』, 민속원.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3』, 민속원.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4』, 민속원.
최동원 · 임명진 편, 2003, 『유성기음반 가사집5』, 민속원.
최동원 · 임명진 편, 2003, 『유성기음반 가사집6』, 민속원.
이준희 · 장유정 편, 2008, 『유성기음반 가사집6』, 민속원.
음원은 www.ponky.kr을 참조하였다.

과 기억'의 문제와 얽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들었던 '노래'를 매개로 만주는 기억되며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만주 열풍이 식민지 조선을 휩쓸었을 당시, 만주를 향한 동시대적 감성은 주체와 시대를 당대적 현존으로 묶어줌으로써 하나의 사회적인 리듬으로 거듭난다. 동시대적 감성을 매개로 대중가요는 수많은 청취자를 동반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기억은 '감성'을 경유하면서 오래도록 지속된다. 음악을 일컬어 어떤 것에 대한 특정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망각하게 만드는 '심적 스위치(mental switch)'라고 할 때,⁷⁾ 대중가요는 그러한 심적 스위치 중 하나이자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가동적(mobile) 테크놀로지이다. 지금 이곳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다른 세상, 다른 공간에 대한 희구 역시 절실했을 터, 대중가요는 그 희구 사이로 흘러 들어온다. 만주에서 실현하고픈 또 다른 생에 대한 갈망은 만주 노래들이 빚어내고 있는 감성의 스펙트럼 속에서 증폭되고 변주되며, 일상 속으로 퍼져나간다. 만주에서의 삶이 지니고 있는 '리얼리티'와 만주행을 부추기는 '프로파간다', 그리고 만주 노래로부터 스며 나오는 '감성'은 당대 대중가요 속에서 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진다. 다른 공간, 다른 삶에 대한 욕망이 '감성'을 경유할 때 어떠한 화학작용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이 글이 탐색할 지점이다.

II.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감성

당시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만주 열광'은 현재와는 다른 삶을 열망하는 욕망이 '만주'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기호화된 것이다. 만주에 대한 애착은 그곳에 감으로써 다른 존재로 전이될 수 있는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감성'의 상태를 지칭한다. 여기서 '헤테로토피아'란,

7) Tia DeNora · 정우진 옮김, 2012, 앞의 책, 323쪽.

관념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유토피아(utopia)’와 대립되는 장소로서, ‘위치를 가지는 유토피아⁸⁾’를 뜻한다.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비록 후대의 학자들에게 ‘아쉽게도 푸코가 발전시키지 못한 일련의 직관들’ 중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헤테로토피아의 본질이 다른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는 데 있다⁹⁾”는 논의는 되새길 만하다.¹⁰⁾ 만주국 건국 과정이 ‘변방 세력권의 건설, 즉 중심에서 소외된 집단의 영토 만들기¹¹⁾’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만주 내 일본인 집단들은 일본의 기성사회에서는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개척지를 만주에서 발견했다¹²⁾’는 점을 고려하면, 만주의 헤테로토피아적 성격¹³⁾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감성’이라는 문제들은 1930년대~1940년대 식민지

- 8) Michel Foucault, 1967, “Different Spaces”, edited by James. D. Faubion, translated by Robert Hurley and others, 2006, *Aesthetics, Method and Epistemology*, New York : The New York Press, p.178.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만주에 대해, “거기에 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체험,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山室信一·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18쪽(2007, 『키메라 : 滿洲國の肖像』, 東京 : 中央公論新社)을 참조함.
- 9) Michel Foucault·이상길 옮김, 2014, 「헤테로토피아」, *문화과지성사*, 24쪽(2009, *Le corps utopique/ Les Hétérotopies*, 라디오 강연 원고). 르페브르는 푸코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헤테로토피아’를 ‘도시 혁명이 일어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David Harvy, 2007, “The Kantian Roots of Foucault’s Dilemmas”, *Space, knowledge and power : Foucault and geography*, Edited by Jeremy W. Crampton and Stuart Elden, Aldershot, England; Burlington, VT : Ashgate, p.45).
- 10)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국인 노인들을 인터뷰한 구술 자료집 『검은 우산 아래에서 : 식민지 조선의 목소리 1910~1945』에서 만주에 관한 부분을 보면, 만주는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정상으로 일컬어지는 일체의 전통을 지워버리는 반(反)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전과자가 된 맑시스트 청년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곽은희, 2014. 4,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0집, 83~114쪽).
- 11)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51쪽.
- 12) Prasenjit Duara·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135쪽(20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New York : Rowman and Littlefield).
- 13)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할 것. 노상래, 2014. 4.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0집, 1~48쪽.; 서제길, 2014. 4. 「나운규 영화와 만주-〈사랑은 차저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0집, 49~82쪽.

조선에 널리 퍼져있었던 ‘만주 열광’의 내면으로 다가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만주는 월경하는 땅, 즉 굽주림에 젖은 조선의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경계를 넘어가던 곳이었다. 기아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과 잠입의 형태로 시작되던 만주 이주는 만주국 시대에 이르러 대규모 정책 이민¹⁴⁾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주민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¹⁵⁾ 1930년대 중반 조선의 경남·경북·강원 일대가 침수되는 등 자연재해를 겪게 되자 ‘만주이민’은 “항구적인 복구책”으로 평가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주’는 농민들에게 ‘탈출구’로 자리 잡았다.¹⁶⁾

이런 면에서 만주는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할 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상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와는 차원이 다른 공간, 즉 ‘헤테로토피아’이다. 유토피아의 진정성이 움짱달짝하지 못하고 간혀 있는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¹⁷⁾ 헤테로토피아의 진정성은 공존가능한 ‘너머의 공간’을 바로 오늘 여기에 만들어 나간다는 데 있다.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공간’을 만듦으로써 여기 이곳을 변혁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천의 표지이다.

그렇다면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도정(道程)에서 감성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감성은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도정을 세밀하게 감지하며 프로파간다의 언어로 봉합할 수 없는 실존의 결을 추적한다.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14)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국책이민’이나 ‘개척민’이라는 용어로 일괄 포괄되면서 제국 권력의 큰 지원과 비호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진정한 ‘장려’ 정책은 조선인 농민이 아니라 일본인 농민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조선인 이민은 근본적으로 ‘통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김기훈,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 -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31, 103쪽).

15)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제국내 이민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199~210쪽.

16) 한석정, 2003, 11, 「지역체계의 허실 -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학회』 37, 58~69쪽.

17) Fredric Jameson, 황정아 옮김, 2009, 「유토피아의 정치학」, 프레드릭 제임슨·데이비드 하비·조만니 아리기 외 지음, 김철효·신현욱·정병선·정재원·홍기빈 외 옮김, 『뉴레프트리뷰2』, 2010년 2월호, 도서출판 길, 367쪽(2004, January-February, “The Politics of utopia”, *New Left Review* 25).

사유는 지금 이곳에 대한 가치 없는 비판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금기에 다가
 가 있으며, 그런 만큼 자유와 보다 근접해 있다. 그러나 유토피아에 대한 낙
 관적 전망을 실현하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곳은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유토피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가 합리적 계획과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집중될 때 보다 나은 미래를 위
 한 청사진은 경직된 당파성으로 치닫게 된다.¹⁸⁾ 완전히 계획된, 완전히 통
 제된 세상에 대한 근대적 충동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달려갈 때, 혹은
 계획과 통제는 합리적 행동의 근대적 수단들이 독점할 수 있는 절대적 권
 력에 의해 받아들여졌을 때 홀로코스트와 같은 제노사이드가 일어난다¹⁹⁾는
 바우만의 성찰은 이런 맥락에서 유효하다.

다시 대중가요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면, 대중가요는 인간의 무수한 감
 정을 담는 장르라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조망, 전체로서의 통계 수치가 아우
 를 수 없는 만주의 모습에 근접해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가요가 실존의 현
 장을 얼마나 뾰족하게 담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모호하고 불투명
 하기 짝이 없는 ‘기억’이, 뾰족성에 초점을 맞춘 ‘사진’보다 진정성이 부족
 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²⁰⁾ 이 글의 목적은 실존을 뾰족하게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감성이 기억하는 만주는 우세한 하나의 서사로 아우를 수 없다. 대중가요
 가 감성을 통해 포착한 ‘마음의 결’과 ‘실존의 풍경’은 오히려 여러 조각들
 이 만들어낸 ‘콜라주’에 가깝다. 하나로 아우를 수 없는 조각들 사이의 틈들
 을 그대로 두는 것, 그리하여 각기 다른 목소리들로 하여금 그 틈들 사이에

18) 이 같은 문제의식은 야마무로 신이치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만주국이 제도
 화되는 가운데 ‘농민자치’, ‘분권적 자치국가’라는 이상이 어떻게 소거되는지를 분석하
 고 있다. 그에 의하면, 기획입안과 행정효율을 강조할수록, 즉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원리를 강조할수록 소수자의 손에 실권이 집중되어 간다(山室信一·윤대석 옮김, 2009,
 앞의 책, 제2장과 제3장 83~184쪽).

19) Zygmunt Bauman · 정일준 옮김, 2013,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155~201쪽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20) Siegfried Kracauer, 1995, “Photography”, *The Mass Ornament*, translated, edited, and Introduction
 by Thomas Y. Levin.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pp.50~52.

서 마음껏 아우성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콜라주의 묘미일 터, 각 편의 대중가요 역시 만주 콜라주를 구성하는 조각들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조각 사이의 간극과 틈으로 인한 불편함이 외부로부터의 사유로 이어져 표면 너머를 사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Ⅲ. 간극과 틈 : ‘프로파간다’와 ‘실존’ 사이

「시국인식의 철저는 노래로부터」²¹⁾라는 『매일신보』 기사(1937. 9. 1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시체제기의 가요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예술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감성의 배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1937년 이후 조선 문예회는 “시국을 일반에게 보편화 식히기를 위하여”²²⁾ ‘시국가요’·‘애국가요’를 제작·시연·보급하는 한편, ‘유행가요’를 ‘저속한 레코드’로 통칭하면서 ‘고상하고 건설적인 음악’을 지향하는 ‘국민오락’의 대극점에 배치하였다.²³⁾ 음악은 특수한 행위 전략과 꼭 맞는 공간으로 그 공간을 배치하는 데 기여하는 ‘구조화’의 힘을 지니는바,²⁴⁾ “시국에 적절한 건전한 국민 음악”²⁵⁾은 공간을 구조화하는 음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군국가요’로 불리는 시국가요에서 ‘감정’은 특정한 정서를 교시하고, 그러한 정서 속에서 주인공을 향해서 동일화하도록 촉진시킴으로써 국민적 주체의 경험을 정서적으로 재체험시키는 기술²⁶⁾과 관련된다.

21) 「권위(權威)들 작사, 작곡 시국가요발표 - 조선문예회 15일 저녁 관계자(원문대로 인용함)가 회집 이양직 아악부에서」 『매일신보』, 1937년 9월 17일 2면 1단.

22) 「조선문예회 시국가요 시연회 개최」 『매일신보』 9월 12일 2면 5단.

23) 이화여전 교수 김메리, 「국민오락으로 고상하고 건설적인 음악 : 저급한 유행곡을 배척합시다」 『매일신보』, 1940년 9월 11일 4면 1단.

24) Tia Denora · 정우진 옮김, 2012, 앞의 책, 271쪽.

25) 「國民音樂 樹立의 烽火 - 絢爛한 樂團의 祭典」 『매일신보』, 1942. 9. 12. (여기서는 음악학 연구회 엮음, 1998, 『음악학5 : 《매일신보》 음악 기사 : 1941~1945」, 민음사, 222쪽을 참조함.)

26) 酒井直樹 外 7人 · 최경옥 옮김, 2014, 「다민족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적 주체의 제작과 소수자의 통합」 『총력전하의 압과 제도』, 소명출판, 29쪽(2002, 『總力戰下の知と制度 1935~

송달협이 부른 「만주신랑」²⁷⁾은 지난 과거를 “정하나 잘못주어 우는 가슴” · “밭하나 잘못 짚어 빠진 밭길” · “꿈하나 잘못꾸어 헝큰 청춘”으로 규정하는 반면, 만주에서의 삶을 ‘새 사랑 새 태양’ · ‘새 사주 새 역사’ · ‘새 사람 새 나라’로 규정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노래한다. 만주를 “사천만 오족(五族)의 새로운 낙토”로, 조선인을 “척사(拓土)로 그린 「아리랑 만주」²⁸⁾ 역시 같은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만주가 새로운 고향으로 표상되든(「꽃피는 북만선」²⁹⁾), 인큐베이팅의 공간으로 표상되든(「오동동 극단」³⁰⁾)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다. 「오동동 극단」은 가극단에 소속되어 남만주와 북만주를 떠돌아다니는 열일곱 아가씨의 고난을 ‘언제나 서울무대 스타 꿈을 안고서’ 샛별을 바라보는 다부진 수련의 과정으로 승화시킨다.

만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심적 에너지의 강도가 얼마나 강렬한지는 “북만별 천리길에 새 고향”(「꽃피는 북만선」)을 향해가는 ‘속도감’을 통해 표현된다. 이 속도감은 주로 흥겨운 선율과 빠른 템포로 표현된다.³¹⁾ 「꽃피는 북만선」 · 「북지만리」³²⁾ · 「희망의 썰매」³³⁾ · 「송화강 썰매」³⁴⁾ · 「북극 오천 키로」³⁵⁾ · 「유랑마차」³⁶⁾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기차 · 마차 · 썰매는 “저언덕을 넘어서면 새세상”, “저고개를 넘어서면 새천지”(「북지만리」)를 향해가는 속도를 매개해 준다. 이 속도감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현재적

55年』1, 岩波書店).

27) 김다인 작사, 이봉룡 작곡, 송달협 노래, Okeh. 31099, 1942. 3.
 28) 윤해영 작사, 전기현 작곡, 백년설 노래, Taihei. 5020, 1941. 11.
 29) 박향민 작사, 전기현 작곡, 이인권 노래, Taihei. 5061, 1943. 2.
 30) 처녀립 작사, 이재호 작곡, 백난아 노래, Taihei. 3011, 1940. 11.
 31) 빠른 템포와 흥겨운 선율이 이주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가사와 어우러진다(장유정, 2012,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가요와 디아스포라』 『근대 대중가요의 지속과 변모』, 소명출판, 79~81쪽).
 32) 김영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Taihei. 3028, 1941. 3.
 33) 김다인 작사, 김송규 작곡, 김해송 노래, Columbia. 40848, 1939. 2.
 34) 조명암 작사, 송희선 작곡, 권명성 노래, Okeh. K-5010, 1940. 9.
 35) 박영호 작사, 무적인 작곡, 채규엽 노래, Taihei. 3034, 1941. 4.
 36)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 남인수 노래, Okeh. 1984, 1937. 3.

삶'과 만주에서의 '미래적 삶' 사이의 간극이 최소화된다. 파시즘은 일찍이 미래지향적인 모더니티의 본질적 속성을 받아들였으므로,³⁷⁾ “어서어서 달 리자”(「희망의 썰매」)는 속도감을 매개로 유토피아의 실현을 담지하는 것은 파시즘이 대중의 열정을 동원하는 낯익은 방식이다.

만주행 엑소더스를 추동하는 프로파간다는 대중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³⁸⁾ 만주가 대중들의 감성 속으로 파고드는 방식 역시 그 욕망의 회로와 무관하지 않다. 만주와 조선을 배치하는 젠더적 구획은 대표적인 예이다. 「할빈다방」³⁹⁾ · 「용마차」⁴⁰⁾ · 「만주로 가는 님」⁴¹⁾ · 「목단강 편지」⁴²⁾ · 「꿈꾸는 타관역」⁴³⁾ · 「북방소식」⁴⁴⁾과 같은 가요들에서 만주를 향한 욕망은 남성적 판타지에 기반한 젠더 정치와 연동하고 있다. ‘새로운 땅’이라는 만주의 이미지는 ‘하르빈 아가씨’(「할빈다방」) · ‘양귀비 아가씨’(「용마차」) · ‘꾸냥’(「황하다방」⁴⁵⁾)으로 불리는 중국 여성에 대한 점유⁴⁶⁾와 오버랩되면서 남성 판타지를 부추긴다.⁴⁷⁾ ‘오국성(五國城) 부는 바람 피리’에 실어오는 만주국 풍경이 ‘봄이 가면 지향없이 흘러갈 양치기 길손/ 다시야 말날 날을 칠성님께 빌었다’는 ‘꾸냥’의 사연으로 채워지는 「만포선 길손」⁴⁸⁾도 남성적 판타지에 충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남성 판

37) Mark Neocleous · 정준영 옮김, 2002, 『파시즘』, 이후, 140쪽(1997, *Fascism : Concepts in social thought*, Minnesota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8) 광은희, 2013. 12,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연구』 16, 172쪽.

39)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Okeh. 31099, 1942. 3.

40) 반아월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Taihei. 5066, 1943. 3.

41) 이가실 작사, 전기현 작곡, 손복춘 노래, Columbia. 44010, 1940. 8.

42)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이화자 노래, Okeh. 12190, 1942. 3.

43) 이성립 작사, 김해송 작곡, 이난영 노래, Okeh. K-5026, 1941. 2.

44) 이하운 작사, 大村能章 작곡, 김인숙 노래, Columbia. 40744, 1937. 1.

45) 김영일 작사, 이재호 작곡, 백난아 노래, Taihei. 3017, 1941. 1.

46) 리코란이 부른 「지나의 밤」 역시 하얼빈의 밤을 배경으로 중국여성을 점유 대상으로 하고 있다(한석정, 2009. 12, 「만주 웨스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84집, 19~20쪽).

47) 젠더는 제국주의의 주요 도구이다. 특히 남성성을 위한 퍼포먼스는 제국이 지배집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박형지 · 설혜심, 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아카넷, 39~43쪽).

48) 박영호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Taihei. 3017, 1941. 1.

타지는 ‘동양을 점유하는 제국적 주체’라는 판타지로 연결되며, 식민지 조선에 ‘정체된 여성’·‘버려진 여성’·‘기다리는 여성’과 같은 이미지를 덧셈으로써 증폭된다. “만주 마차는 쌍마차/ 월계꽃 피는 마을 새 아가씨 마중가자”, “만주 마차는 역마차/ 꾸냥 아가씨야 아름답다 정답다/ 짤랑짤랑 달린다”는 「용마차」의 가사는 「만주로 가는 님」의 3절 가사 “내일은 만주 하늘 바라보실 임이여/ 고향에 남긴 짝을 잊지나 마소”와 미묘하게 대비된다. 특히 「꿈꾸는 타관역」에서 “삼년이 지난 이날 이때 서신 한 장도 없구나(1절)// 애타는 사연편지 쓰다가 말다가/ 불을 끄고 넘어지는 싸늘한 베게밑/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사연이나 「북방소식」의 경우처럼 “가실때 손목 잡고/ 남겨두신 그언약/ 눈물을 흘니면서/ 오 기다리는 이몸이외다”라는 사연은 조선과 만주 사이를 ‘기다리는 여성/시들어가는 여성’과 ‘떠난 남성/소식없는 남성’이라는 젠더적 위계로 구획한다.

이러한 배치를 여성 스스로 떨쳐내는 과정은, ‘군국의 여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통감각’을 창출하는 일로 이어진다. 「목단강 편지」를 보면, 여성은 이제 “밤을 새워 읽은 편지 밤을 새워 감사하며(3절)”·“한 번 읽고 단념하고 두 번 읽고 맹세”하기에 다다른다. 그녀는 “선생님이 되옵소서/ 사나이 가는 길에 가시녕쿨 넘고 넘어/ 난초 피는 만주땅에 흠이 되소서” 기원하며, “여자의 마음 둘 곳 분접시가 아닌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아서 울었나이다”라고 고백한다. ‘군국의 여성’이라는 회로를 경유할 때 여성은 ‘떠난 님의 성공을 기원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지만, 여전히 동원의 프로파간다 내부에 갇혀 있다. “우리 아가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 총알맞은 전투모를 씌워 달라고/ 앙금앙금 그 꿈 속에 즐라 보렴아(2절)// 우리 애기 병정 애기 잘도 자누나(3절)” 하며 부르는 「총후의 자장가」⁴⁹⁾는 총후 부인의 공통감각을, 칼 꽃은 총을 들고 망루에 서서 “피 묻은 허리띠를 보내오리다”라고 맹세하는 「망루의 밤」⁵⁰⁾과 “아세아의 풍운아”가 되어 “젊은 피 흘려 보자 당나귀

49)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박향림 노래, Okeh 31097, 1942. 3.

50)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백년설 노래, Okeh 31145, 1942. 12.

야 달려라” 외치는 「대지의 사나이」⁵¹⁾는 전장(戰場)의 공통감각을 대중가요 속으로 흘러보낸다.

이처럼 대중가요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지만, ‘대중가요=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도식만으로는 대중가요의 존재 양상을 해명할 수 없다. 대중가요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양상은 오히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과 공존하고 있는 실존의 굴곡들을 포착하고 있다는 데 있다. 프로파간다와 실존 사이의 간극은, 당대의 실존이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으로 균질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국의 문화정책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모순적인 지대’⁵²⁾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37년 이후 만주 소재 대중가요에는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만주에 대한 기대와 애착만큼 실존의 장에서 묻어나오는 비애와 회한이 담겨있다. 이러한 양상은 보다 근본적으로 대중가요가 인간의 감정, 즉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단함, 시기, 기쁨, 친애, 미움, 갈망, 시샘, 연민 등 즐거움과 고통이 동반하는 것으로서의 감정”⁵³⁾의 진폭을 담고 있는 장르라는 점에서 기원한다. 칼바람(1절)·눈바람(2절)·얼음강판(3절)을 헤치며 송화강 너머 시베리아로 달려가고 있는 장면은 피끓는 젊은이가 사랑을 버리고 웨카술에 취해 있거나「송화강 썰매」, 눈보라 속에서 울고 있는 흥도(「희망의 썰매」)와 오버랩된다. 조선을 떠나왔으나 정작 갈 길이 어딘지 몰라 북만주 넓은 들을 헤매며 밤을 새는 모습(「북만주황야」⁵⁴⁾), 고삐 잡는 손마디가 얼어 트는 눈

51)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Okkeh 31167, 1943. 6.

52)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순적인 지대’에는 감성의 이중적 면모가 자리 잡고 있다. 감성의 이중적 면모는 샤르트르가 묘사한 ‘원주민의 춤’과 유사하다. 원주민들은 ‘춤’을 통하여 그들이 감히 드러내지도 저지르지도 못하는 거절과 살인을 표현하지만, 춤을 추는 동안의 ‘황홀경’을 통해 자신들의 폭력성을 탕진해 버린다(Jean-Paul Sartre, 1967, “Preface”, Frantz Fanon, translated by Constance Farringt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Penguin Books, pp.16~17). 이 장면은, 투쟁적 에너지를 순화시키는 메커니즘이 ‘감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탕진의 순간은 만족감의 극치로 경험된다. 이때 ‘감성’은 비극적인 순간을 쾌의 감각으로 전도시키는 중핵으로 자리 잡는다.

53) Aristotle·강상진 외 2인 옮김,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61쪽(1894, *Aristotelis Ethica Nicomachea*, recognovit brevique adnotatione critica instruxit I. Bywater, Oxford: Clarendon Press).

별판에서 갈수록 향방 없는 나그네 모습(「오로라의 눈썹매」)⁵⁵⁾은 전장(戰場)의 공통감각이나 개척의 감각과 같은 프로파간다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보여주는 노래들이다.

만주행 엑소더스를 둘러싼 실존의 장(場)에는 서둘러 봉합할 수 없는 갈등과 동요들이 존재하고 있다. “건전한 국민가집을 발행한다음 이것을 각 학교에 나누어 주어 부르게 하는 한편 라디오를 통하여 매일 방송함으로써 일반사람들이 자연히 유행가를 부리지 안코 씩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⁵⁶⁾한다는 당국의 지침이 구축되어 있다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는 감정적 청취자는 언제든 있기 마련이다. 감정적 청취자는 흘러가는 음악 속에 자신을 맡기며 마음을 울려줄 노래를 찾는다.⁵⁷⁾ 가수 채규엽이 유행가곡(流行歌曲)에 대해 “그 시대시대의 민중의 심리를 가장 여실히 묘사한 음악”이자 “당시당시의 민중의 회노예락의 정서를 가장 교묘하게 표현한 것”⁵⁸⁾임을 강조한 것도 실존과 공존하고 있는 대중가요의 존재 양상과 상통한다. 박영호 역시 만주사변 후 「블루—스 모/」가 갑자기 유행하고 있는 현상에서 “전시하(戰時下)의 민중이 무척 긴장한 정신을 가지고있는 한편 그긴장에서 오는 피로를 「블루—스」 같은데에서 풀어보고저하는 안이감(安易感)”⁵⁹⁾을 포착하고 있다.

“정을 들고 못 살바엔 아 - 이별이 좋다(1절)// 허물어진 사랑에는 아 - 이별이 좋다(2절)”며 애써 다짐하는 「울니는 만주선」⁶⁰⁾이나, “니저야 울흐냐

54) 이하운 작사, 문예부 편곡, 김인숙 노래, Columbia. 40791, 1937. 11.

55) 조명암 작사, 김령파 작곡, 남인수 노래, Okch. 12222, 1939. 3.

56) 「<音樂家들 蹶起> 健全音樂 普及을 決議」, 『매일신보』, 1941. 9. 14.(기사는 음악학 연구회 위임, 1998, 앞의 책, 105쪽을 참조함.)

57) 음악이야말로 자기보존을 위한 활동에 지쳐있는 이에게 한 줄이라도 정서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반이성적인 정신의 원천이다. 이에 대해서는 Thodor W. Adorno · 김방현 옮김, 1990, 『음악사회학입문』, 삼호출판사, 1990, 1~21쪽(1962, *Einleitung in die Musiksoziologie*, Frankfurt am Main : Suhrkamp)을 참조함.

58) 채규엽은 이 글에서 ‘유행가곡’을 “시인 동시에 확실한 음악”, “리듬-멜로디-하모니-를 갖춘 음악”으로 정의하였다(채규엽, 「유행가는 탄식한다」, 『삼천리』 제5권 제3호, 1933년 3월호, 77쪽).

59) 왕평 · 박영호 외, 「레코-드계의 내막을 듣는 좌담회」, 『조광』 제41호, 1939. 3, 316쪽.

니저야 올흐냐”고 되묻는 「북극오천키로」⁶¹⁾는 만주로 떠나는 이들의 흔들리는 심사가 드러나 있다. 이 노래를 듣는 대중들을 결속하는 것은 동요와 불안이다. “정들면 고향”(「정든땅」⁶²⁾이라든가 “낮이면 땅을 파는 농군이 되고/ 밤이면 책을 읽는 선비”(「어머님 안심하소서」⁶³⁾)라는 프로파간다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유랑마차」⁶⁴⁾에서처럼 만주는 “보랏빛 안개 속에 파랑새가 날 부르”는 공간이지만 “한 많은 보헤미안 눈물 어린 국경”이기도 했으므로, 만주행에는 “가는 거냐 우는 거냐”(「눈오는 백무선」⁶⁵⁾)를 알 수 없는 슬픔의 감성이 동반된다. 이러한 감정적 동요와 슬픔은 곧 윤리를 담는 출발점이 된다.

IV. 슬픔의 감성과 윤리적 지평

감성은 견고하고 안정된 지반을 뒤흔들고 에너지를 증폭시킴으로써 감정적인 격동을 경험하게 한다. ‘기쁨’을 ‘정신이 완전한 최고점에 이르는 열정’, ‘슬픔’을 ‘정신이 완전한 최저점에 이르는 열정’이라고 할 때,⁶⁶⁾ 감성은 정신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르내리는 열정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감성은 한 치의 균열도 없는 듯이 단단하게 뭉쳐진 신념의 덩어리 속으로 흘러들어, 세계에 대한 이물감을 느끼도록 한다. 감정적인 격동 속에 존재의 휘청거림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존재 조건을 근원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60) 조명암 작사, 손목인 작곡, 남인수 노래, Okeh. 12164, 1938. 9.

61)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 채규엽 노래, Taihei. 8600, 1939. 1.

62) 조명암 작사, 이봉룡 작곡, 백년설 노래, Okeh. 31157, 1943. 2.

63)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남인수 노래, Okeh. 31146, 1942. 12.

64) 박영호 작사, 손목인 작곡, 남인수 노래, Okeh. 1984, 1937. 3.

65) 불사조 작사, 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 Taihei. 3016, 1941. 1.

66) Michel Onfray · 광동준 옮김, 2011, 『바로크의 자유사상가들』, 인간사랑, 2011, 271쪽(2007, *Les libertins baroques*, éditions Grasset).

슬픔의 감성은, 생존 자체를 위하여 스스로를 완전히 소모하도록 밀어붙이는 ‘열정 노동’을 저지시킨다는 점에서, 열정과 착취가 얽혀있는 총동원 메커니즘을 내부로부터 침식하게 만든다. 엔 블록과 계획 경제로 이어지는 낙관적 청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텔리겐차들의 실험은 대중들에게 ‘만주로 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자기 착취로 치닫는 과도한 노동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1930년대의 평만 댐 건설 프로젝트는 댐 기술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졌지만, 다수의 중국인 비숙련 노동력의 동원과 혹사 없이는 실행될 수 없었음⁶⁷⁾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과 합리적 계획을 토대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은 인간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긍정의 과잉은 소진과 고갈⁶⁸⁾을 동반하고 있다.

긍정의 과잉 속에서 최고치를 향해 연소되고 있는 열정의 가속도를 늦추는 것은 슬픔의 감성⁶⁹⁾을 통해서이다. 「애수의 압록강」⁷⁰⁾에서 발견되는 슬픔 어린 심정은, 만주행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캐묻고자 하는 의지와 맞물려 있다.

67)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전에 강의 대부분을 막아야만 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영하 40도에 이르는 온도에서 밤낮으로 일했다. 평만 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사흘에 한 명꼴로 사망했으며, 야간 작업자들은 겨울철 공사 중에 모르핀을 투여받았다(Aaron Moore, 2013, *Constructing East Asia :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p.182).

루이스 영(Loise Young)은 좌파 인텔리겐차들이 만주에 대해 품고 있었던 혁신적인 열망에 주목하면서도 열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동반되었던 ‘경직된 폭력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루이스 영이 만주국을 ‘멋진 신세계’로 명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 Manchuria and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05).

68) Byung-Chul Han · 김태환 옮김, 2012, 『괴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21~22쪽(2010, *Müdigkeitsgesellschaft*, Berlin : Matthes & Seitz Berlin Verlagsgesellschaft mbH).

69) 트로트에 내재되어 있는 탄식과 눈물에 대해 이영미는 “제 발로 세상에 순응해 가는 것, 그 때문에 발생하는 자학과 체념을 외향적으로 드러내면서 후속 호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영미, 2002, 「트로트는 슬픈 노래다,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32~33쪽). 이 글에서는 슬픔의 감성에 대해 ‘체념’·‘무기력’·‘자발적 순응’·‘탄식’·‘자학’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슬픔의 감성이 나와 타인의 실존을 들여다보며 고양시키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70) 조명암 작사, 손목인 작곡, 이화자 노래, Okeh. 20020, 1940. 2.

아~ 뗏목은 흘러간다 압록강 칠백 리를
 황금도 나는 싫어 공명도 나는 싫어
 아~ 오로지 강건너 저 쪽에 내 사랑 그림다 (중략)
 아~ 오로지 피눈물 흘리며 내 사랑 부른다
 아~~~뗏목에 울며간다.

만주는 조선 농민들이 금지의 위반을 무릅쓰고서라도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 곳, 즉 “춘경추귀(春耕秋歸)”, “조경모귀(朝耕暮歸)”의 땅이었던 만큼,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향하게 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만주 이주는 ‘물이 나쁜 데로 흘러가는 것과 맛찬가지로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끌리워 가는 자연적 대세’⁷¹⁾로 묘사될 정도로 자연발생적이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식된다. ‘월경(越境)’은 빈곤 앞에서 무력한 자기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이자 실존으로 내던져졌던 인간이 생을 헤쳐나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한 ‘모험’이라는 점에서 생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으로 승화된다. 그 충동은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근대인의 원초적인 에너지이거나, 만주 이민은 진보적인 이상을 좇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근대의 전형으로 자리 잡는다.

‘강건너 저 쪽에 내 사랑’은 그가 무수한 심적 고통을 겪은 이후에야 도달하게 된 각성의 지점이자, 그러한 각성을 통해서 생성하게 될 새로운 배치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배치가 ‘황금’⁷²⁾과 공명으로 봉쇄되어버린 근대적 기획’을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애수의 압록강」에서 ‘황금’과 ‘공

71) 김동진, 「건국십년의 만주국과 조선인 근황 - 조선 내 자본의 진출과 인물의 집산 등」, 『삼천리』, 1940. 10, 65쪽.

72)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 만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신경에 있는 관계로 조선에서 만주에 드나드는 사람과 비교적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혹은 명사라는 분이 만주에 와서 고관이나 어더할 수 있을까 하고 오는 이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만주에 가서 투자하면 2, 3년에 큰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 버리를 목표로 하고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김경재, 「협회와 조선민족의 무대」 『삼천리』, 1938. 5, 101쪽. 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인용함)

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언뜻 보면 근대인의 이러한 '합리적인' 도정을 배반한 듯 보이지만 실은, 만주 이주에 심각한 문제⁷³⁾가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감지한 결과이다. 노동은 벼랑 끝에 몰린 인간에게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 주지만, 그것이 곧 삶의 의미일 수는 없다. '존재의 항상성'을 약속해 주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인간적 유대와 사회적 인정임을 기억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곧바로 별거벗은 삶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님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상호부조의 우애, 품앗이와 공동의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⁷⁴⁾의 기억이 우리에게 환기하듯, 관계들의 네트워크는 가난한 이들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망⁷⁵⁾을 펼친다.

“타고 남은 사랑아 타고 남은 사랑아 고달픈 유랑에 스러져라 스러져”(『청노새 탄식』⁷⁶⁾) · “마음은 어데메냐 정처없이 흘러가는 북방길/(중략) 오늘은 어드메서 몸을 쉬라 설움에 찬 유랑길”(『북방여로』⁷⁷⁾)과 같은 노래에서 우리는, 사회적 보호망이 해체된 상황에서 겪게 되는 심적 고통과 맞닥뜨리게 된다. 당시 잡지에 실린 대중가요 관련 기사를 보면 ‘슬픔의 감성’은 “방랑(放浪), 항구(港口), 포구(浦口), 리별(離別), 비연(悲戀) 등의 국한(局限)된 범주(範疇)”⁷⁸⁾로 취급되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인간적 유대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해체된 채 이동하고 있는 삶을 섬세한 축수로 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존

73)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경제가 사회 속에 묻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간에게서 경제적 요소만 쏙 뽑아 ‘노동’이라는 상품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의 부당함을 “사회라는 몸체에다 산 채로 해부를 가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Karl Polanyi ·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365쪽(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 Beacon Press)을 참조함.

74) Peter Linebaugh · 정남영 옮김,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스』, 갈무리, 82쪽(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5) 전통적으로 과부와 고아들을 부양하는 일은 공동체에 맡겨진 과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Wolfgang Sachs · 녹색평론사 옮김, 2008, 「개발-파멸로 가는 길」, 김종철 엮음, 『녹색평론선집2』, 녹색평론사, 211쪽(1992. 2. *New Internationalist*, vol.12.)을 참조함.

76) 조명암 작사, 손목인 작곡, 남인수 노래, Okkeh. 12122, 1938. 4.

77) 임서방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Taihei, 8656, 1939. 12.

78) 이하운, 「사로(邪路)에 방황(彷徨)하는 대중가요(大衆歌謠)」 『家庭の友』, 1939. 6, 20쪽.

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 충실하다. 음악평론가였던 김관이 지적하듯이, “음(音)으로 표현(表現)된 민중의감정이 가장솔직(率直)하고 직감적(直感的)으로 나타나는곳에 유행가의특성(特性)이잇는 것”⁷⁹⁾이므로 대중가요의 감성은, 우리 삶을 감각기관을 통해 보다 즉각적으로 느끼고 감지하도록 해 준다. “유행가도 임전태세하의 국민오락으로서의 음악, 환연하면 전시하에 국민의 사기를 양양하고 일일노동후위안을주는 음악이 되어야한다”⁸⁰⁾는 프로파간다의 언어가 실존을 재현할 수 없음은 자명한 터, 「국경의 부두」⁸¹⁾ · 「향수열차」⁸²⁾ · 「국경열차」⁸³⁾ · 「눈물의 국경」⁸⁴⁾과 같은 노래들은 슬픔이 깃들 수밖에 없는 삶을 돌아보게 하게 한다. ‘날 맛을 사람없는 타국 대합실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나그네’(「향수열차’)와 ‘홀리서 갈 곳 없는 얼이 빠진 나그네’(「오로라의 눈썰매」⁸⁵⁾)의 모습은 국경을 오가는 유연한 삶의 형태가 야기하고 있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절레꽃」⁸⁶⁾은 인간적 유대의 소멸과 연대의 약화되기 이전의 삶을 향수어린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절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우에 초가삼간 그림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 주던 못 잊을 동무야(1절)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세 동무
 천리 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삼 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 사진

79) 음악평론가 김관, 「流行歌이야기」 『家庭の友』, 1939. 6, 21쪽.

80) 楊薰, 「유행가의걸어온길」 『조광』, 1942. 7, 378쪽.

81) 유도순 작사, 전기현 작곡, 고운봉 노래, Taihei. 8640, 1939. 7.

82)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편곡, 이인권 노래, Okeh. 20025, 1940. 3.

83)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송달협 노래, Okeh. 12124, 1938. 4.

84) 박영호 작사, 이시우 작곡, 김정구 노래, Okeh. 12177, 1938. 10.

85) 조명암 작사, 김명파 작곡, 남인수 노래, Okeh. 12222, 1939. 3.

86) 김영일 작사, 김교성 작곡, 백난야 노래, Taihei. 5028, 1942. 2.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2절)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복간도
아름다운 찹레꽃이 피었습니다.
피꼬리는 중천에서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3절)

인용한 「찹레꽃」에서 주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별가를 불러 주던 못 잇을 동무”,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세 동무”와의 우정, 멀리 복간도에 와서도 잇을 수 없는 ‘우애적 유대감’이다. 인간은 공감으로 쌓아올린 ‘우애적 유대감’⁸⁷⁾ 속에서 인간다운 생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공감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찹레꽃」의 묘미는 바로 이러한 공감의 감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간도로 떠날 동무를 위해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는 동무의 존재는 ‘언덕 우에 초가삼간’뿐인 고향을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진정으로 가난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결여하지 않은 상태”⁸⁸⁾인 것처럼, 우애로 가득 찬 삶은 이미 자족하다. 「찹레꽃」의 어느 구석에서도 가난으로 인해 삶이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는 지경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자족한 상태 덕분이다.

「찹레꽃」은 우정의 형태를 띠면서 더 충실한 우애로 나아가는 사랑의 고향을 보여준다. 가난한 자들이 비참과 고독을 떠나서 사회를 구성하도록 밀어붙이는 힘은 우애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찹레꽃」의 감성은 자족한 삶의 기억,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었고 살아가게 해 주었던 누군가의 존재에 닿아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은 사회적 유대와 정치적 평등을 향해 나

87) Jeremy Rifkin · 이경남 옮김, 2010, 『공감의 시대』, 민음사, 29쪽(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New York : The Penguin Group).

88) 가난 · 사랑 · 활력에 대해서는 Antonio Negri & Michael Hardt · 정남영 · 윤영광 옮김, 2014, 『공통체』, 사월의 책, 88쪽(2009, *Commonwealth*,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을 참조함.

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곧 활력이다. 방향을 틀지 않는 우애와 사랑⁸⁹⁾은 삶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며,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

전시체제기의 문화지형 속에서 ‘이별과 그리움’·‘객창(客窓)의 서글픔’·‘지향할 데 없이 흘러가는 고독’·‘실연과 눈물’ 등 ‘슬픔’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감성들과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국민오락의 내부가 ‘건전’과 ‘명랑’과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감성으로 프로파간다화되던 현실을 감안해 보면,⁹⁰⁾ 만주 대중가요에서 보이는 슬픔의 감성들을 ‘잉여’ 혹은 ‘퇴폐’로 간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퇴폐’에는 ‘과괴’와 ‘소멸’을 전제하는 상태, 즉 지극히 수동적인 조건이 전제되어 있으므로,⁹¹⁾ ‘퇴폐’라는 범주로는 슬픔의 감성이 지닌 ‘에너지’를 포착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시국에 의해 덧씌워진 ‘퇴폐’라는 표지는, 국민오락의 지대로 흡수되지 않는 ‘특이성의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절망과 슬픔, 설움과 애달픔, 회환과 그리움은 감각적인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보다 섬세하고 예민하게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캐묻게 되며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된다. “의지가 꺾끗하면 꺾끗할수록,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성공되는 도수는 높아가고 곤란은 극복이 되는 것”⁹²⁾이라는 긍정의 프로파간다가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결단되고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지령을 받는 극도로 유동적인 무(無)사회 상태”⁹³⁾의 징후임을 알아보게 되는 것도 고통의 소

89) 사랑은 감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철학적 담론이나 정치적인 담론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사회와 공통체를 구상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빈자들의 생존 메커니즘에서 사회적 유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며, 사랑은 이를 가능하게 근원적인 힘이다(Antonio Negri & Michael Hardt·정남영·윤영광 옮김, 2014, 앞의 책, 260~287쪽).

90) 광은희, 2011. 11, 「전시체제기 놀이의 프로파간다화와 식민지 규율」,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50, 355~386쪽.

91) 박종성, 2013, 『퇴폐에 대하여』, 인간사랑, 23쪽.

92) 장혁주, 「개척정신」 『半島之光』, 1942. 8,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 체험』, 역락, 158쪽을 참조함.

93) 藤田省三·이홍락 옮김, 1995. 겨울,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 비평』 90, 415쪽.

용들이 속에서이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슬픔이나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여 슬퍼하고 절망할 기력조차 남지 않는 상태이다. 인간은 슬픔 속에서 타인의 실존을 포착하고 인간 존재의 여림과 대면한다. 그런 면에서 슬픔의 감성은 윤리적 지평과 연결되어 있다. 실의와 좌절에 빠져 휘청거리는 경험, 슬픔과 비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감정의 격동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동료를, 그리고 사회를 남김없이 알아버리는 ‘사탄의 멧돌’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오늘과갓흔 국가비상시국(國家非常時局)에 처해잇는 우리들에게 퇴폐적가요는 당분간 의식적으로라도 금물(禁物)”이라는 ‘금지’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견제하는 불안이 감지된다. 그러나 슬픔의 감성이 없다면,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가 디스토피아(distopia)가 되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V. 나오며

대중가요 속에서 만주는 레코드를 통해 감성적·대중적으로 유통되면서 상상과 욕망, 그리고 의지의 틈새를 흘러 다니게 된다. 그리하여 ‘만주’는 대중가요가 빚어내는 ‘감성’을 따라 또 다른 삶을 향유하고픈 마음, 혹은 지금 이곳의 괴로움을 감내하는 마음결로 스며들며 그 마음을 일렁이도록 만든다. 당시 대중가요에서 ‘만주’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유행한 현상은 식민지 조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트랜스내셔널한 문화 현상⁹⁴⁾이었다.

94) 이러한 트랜스내셔널한 문화 현상은 단지 식민지 시기의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에 국한해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당시 유행했던 노래 「支那の夜」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병사들과 1960년대 남미로까지 건너갔다(한석정, 2008, 「만주의 기억」,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 ‘한일, 연대21’의 시도』, 뿌리와이파리, 281쪽).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제국/식민지를 넘나들며 형성된 레코드 산업과 그를 추동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유행의 이동, 그리고 이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취향

我日本の大陸政策은 레코-드界에도 反映되어事變以後로 各社會는 支那大陸을 舞臺로한 流行歌를 만드렸다. 「上海だより」를 爲始하여 「支那の夜」·「稱來來」·「姑娘十八」·「鼓弓の哀愁」等이 모두가大陸에서 取材한 流行歌다. 그中에서도 가장많이 流行한 「支那の夜」는 竹岡信幸氏作曲이나 이 曲은 竹岡氏創作이 아니오 支那의 固有한歌謠 「何日君再來」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朝鮮流行歌界에서도 「上海아가씨」·「廣東아가씨」·「눈물의胡弓」等多數의 大陸의 流行歌를 製作하였으나 이것도 勿論內地流行歌에서 影響을 받은 것이다. 政治的變動이 流行歌에 反響되는것은 今番事變에서만 볼수있는 現想이 아니오 滿洲事變後에는 滿洲를 舞臺로한 「滿洲想へば」·「君は滿洲」等の 流行歌가 나왔었고 南洋群島의 委任統治問題가 擡頭하였을 時代에는 「カナカ娘」·「南洋の娘」等の 歌謠가 流行하였었다. 이러한 事實로만 보와도 時代相이 얼마나 銳敏하게 流行歌에 反映되는가를 想像할수있다.⁹⁵⁾

1938년 이후 쏟아져 나온 대륙물들은 아시아 만주 이북 지역을 지칭하는 ‘북극’ 소재 노래들이나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남방’ 소재 노래들과 함께 일본 중심의 아시아 연대리는 새로운 국제적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⁹⁶⁾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는 헤겔이 구성한 역사철학적 동양과의 격투과정 및 진보로 나아가는 근대적 과정이 내포되어 있었던 만큼,⁹⁷⁾ 제국 일본의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다.

헤테로토피아를 향한 감성은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지금 이곳의 실천으로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낭만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만주 열광에 동반되는 낭만성이란, 각양각색의 이상주의자·몽상가들이 만주에서 무한한 개척

의 문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민지 시기의 ‘만주’에 대한 기억이 포스트식민시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남아있는지 ‘음악적인 현상’을 경로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초국적인 차원에서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작업으로 남기기로 한다.

95) 『戰時下の 레코-드界現狀』 『조광』, 1940. 4, 120쪽.

96) 이에 대해서는 이영미, 2012. 2, 「1950년대 대중가요의 아시아적 이국성과 국제성 욕망」, 상허학회, 『상허학보』 34, 329~342쪽을 참조함.

97) 子安宣邦·이승연 옮김, 2005,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동아·대동아·동아시아』, 역사비평사, 55쪽(2003, 『アジア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 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 藤原書店).

지의 가능성을 보았다⁹⁸⁾는 점에서 그러한 것인지, 전시체제기의 문화지형 속에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에 의한 것인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던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기원이 담긴 것인지, 혹은 훗날 만주를 기억하는 이들의 심정이 투사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주를 둘러싼 낭만성의 내부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층위, 다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성’을 경유할 때 만주에 대한 기억은 한 편의 콜라주가 된다. 그것은 불완전한 기억들의 조각에 불과하지만, 콜라주에는 조각난 기억의 편린들을 ‘잇을 수 없는’ 의미로 승화시키는 ‘감성’의 자리가 오롯이 남아 있다. 사진이 사실에 대한 픽진성에 의존한 나머지 대상이 본래 지니고 있던 ‘진정한 의미’를 지워버리게 된다는 크라카우어(Kracauer)의 분석대로, ‘진정한 의미’의 향방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기억’에 있다. 기억은 불안전하지만, 가장 잇을 수 없는 ‘최후의 이미지’를 보존하므로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⁹⁹⁾ 무엇이 가장 잇을 수 없는 최후의 이미지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감성’의 몫이다.

이상향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성’의 몫이라면, 시스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하도록 해 주는 것은 ‘감성’의 몫이다. 감성은 기억의 틈새를 흘러다니며, 지금 도달한 ‘다른 공간’이 정말 헤테로토피아인지 끊임없이 감지한다. 감성이 구성하는 만주 콜라주를 통해 우리가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사유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성’ 덕분이다. 대중가요에 만주를 기획하고 건설했던 낙관적 전망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고 만주에서의 실존이 묻어 들어 있기도 하다고 해서, 즉 감성의 양면적인 특성 때문에 감성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감성’은 우리의 실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지한다. 또한 ‘감성’은 ‘이상’과 ‘현실’ 사이, ‘프로파간다’와 ‘실존’의 사이를 흘러 다니며 실존 속의 인간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보살핀다.

98) Prasenjit Duara · 한석정 옮김, 2009, 앞의 책, 135쪽.

99) Siegfried Kracauer, 1995, pp.50-52.

대중가요는 노래를 부르고 듣는 행위, 즉 ‘감성’을 통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는 장르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우리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고 함께 느끼며, ‘너도 나다’라는 공감의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약하고 불행하고 고통 받는 타인의 건강함과 복지를 책임지려는 욕구가 도덕의 실체¹⁰⁰라면, 공감의 감성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듦으로써 도덕적 감수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공감의 매체’로서 대중가요가 지닌 성격은 ‘헤테로토피아’의 본질과 맞물려 있다. 타자의 장소가 될 때 그곳이 비로소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몫을 생각하는 공동체적 감성을 지니게 될 때 대중가요는 사적 취향의 향유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투고일 : 2014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23일

100) Zygmunt Bauman ·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 :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152쪽(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매일신보』, 『삼천리』, 『조광』, 『家庭の友』, 『半島の光』
김점도 편저, 2000, 『유성기음반총람자료집 : 1907년부터 1943년까지』, 신나라뮤직
이보형·홍기원·배연형 편저,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1』, 민속원
이보형·홍기원·배연형 편저,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2』, 민속원
이준희·장유정 편, 2008, 『유성기음반 가사집6』, 민속원
최동원·임명진 편, 2003, 『유성기음반 가사집5』, 민속원
최동원·임명진 편, 2003, 『유성기음반 가사집6』, 민속원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3』, 민속원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1999, 『유성기음반 가사집4』, 민속원
www.ponky.kr

2. 논문 및 단행본

- 구인모, 2013, 『유성기의 시대 유행시인의 탄생 : 시와 유행가요의 경계에 선 시인들』, 현실문화
곽은희, 2011. 11, 「전시체제기 놀이의 프로파간다화와 식민지 규율」,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50
곽은희, 2013. 12,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만주연구』 16
곽은희, 2014. 4,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0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제국내 이민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김기훈,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 이민담론의 시론적 고찰-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31
노상래, 2014. 4,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0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 체험』, 역락
박종성, 2013, 『퇴폐에 대하여』, 인간사랑
박형지·설혜심, 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아카넷
서재길, 2014. 4, 「나운규 영화와 만주-〈사랑은 차저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0
이동순, 2010. 12, 「일제강점기 가요시 장르의 문화사적 가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 연구소, 『인문연구』 60
- 이영미, 2002, 「트르트는 슬픈 노래다」,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 이영미, 2012, 「1950년대 대중가요의 아시아적 이국성과 국제성 욕망」, 상허학회, 『상허학보』 34
- 장유정, 2012,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가요와 디아스포라」, 『근대 대중가요의 지속과 변모』, 소명출판
- 조태성, 2010, 「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파장 혹은 스펙트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연구』 창간호
- 한석정, 2003. 11, 「지역체계의 허실 -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7
-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 한석정, 2008, 「만주의 기억」,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 ‘한일, 연대21’의 시도』, 뿌리와이파리
- 한석정, 2009. 12, 「만주 웨스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84집
- 藤田省三 · 이홍락 옮김, 1995,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 비평』, 1995년 겨울호 통권 90호
- 山室信一 ·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 子安宣邦 · 이승연 옮김, 2005,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 동아 · 대동아 ·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 酒井直樹 外 7人 · 최정옥 옮김, 2014, 「다민족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적 주체의 제각과 소수자의 통합」, 酒井直樹 外 7人 · 이종호 외 옮김, 『총력전하의 압과 제도』, 소명출판
- Foucault, 1967, “Different Spaces”, edited by James. D. Faubion, translated by Robert Hurley and others, 2006, *Aesthetics, Method and Epistemology*, New York : The New York Press
- Jeremy Rifkin · 이경남 옮김, 2010, 『공감의 시대』, 민음사
- Peter Linebaugh · 정남영 옮김, 『마그나카르타 선언 :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스』, 갈무리, 2012
- Zygmunt Bauman ·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 :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 Aaron Moore, 2013, *Constructing East Asia : 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Antonio Negri & Michael Hardt · 정남영 · 윤영광 옮김, 2014, 『공통체』, 사월의 책
- Aristotle · 강상진 외 2인 옮김,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 Byung-Chul Han · 김태환 옮김, 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David Harvy, 2007, “The Kantian Roots of Foucault’s Dilemmas”, *Space, knowledge and power : Foucault and geography*, Edited by Jeremy W. Crampton and Stuart Elden, Aldershot, England; Burlington, VT : Ashgate
- Fredric Jameson, 황정아 옮김, 2009, 「유토피아의 정치학」, 프레드릭 제임슨 · 데이비드 하비 · 조반니 아리기 외 지음, 김철효 · 신현옥 · 정병선 · 정재원 · 홍기빈 외 옮김, 『뉴레트프리뷰2』, 2010년 2월호, 도서출판 길
- Jean-Paul Sartre, 1967, “Preface”, translated by Constance Farrington,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 Penguin Books
- Karl Polanyi ·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 우리 시대의 정치 · 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 Manchuria and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k Neocleous · 정준영 옮김, 2002, 『파시즘』, 이후
- Michel Foucault · 이상길 옮김,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 Michel Onfray · 곽동준 옮김, 2011, 『바로크의 자유사상가들』, 인간사랑, 2011
- Prasenjit Duara ·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 Siegfried Kracauer, 1995, “Photography”, *The Mass Ornament*, translated, edited, and Introduction by Thomas Y. Levin.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Thodor W. Adorno · 김방현 옮김, 1990, 『음악사회학입문』, 삼호출판사, 1990
- Thomas Hobbes of Malmesbury · 진석용 옮김, 2008, 『리바이어던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제1책, 나남
- Tia Denora · 정우진 옮김, 2012, 『아도르노 그 이후 : 음악사회학을 다시 생각한다』, 한길사
- Wolfgang Sachs · 녹색평론사 옮김, 「개발 - 파멸로 가는 길」, 김종철 엮음, 『녹색평론 선집2』, 녹색평론사, 2008
- Zygmunt Bauman · 정일준 옮김, 2013,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 Abstract ■

Remembering Manchuria through Emotion
— Focusing on Pop Music on Manchuria —

Kwak, Eun-Hee

In this paper, I had views on the need that go through the process of ‘emotionally’ treatment Manchurian image that remains in the people’s memory, in order that the place of Manchuria anchored in the minds of the public and moved their heart, and so I traced an aspect that ‘Manchuria’ coexist with ‘emotion’ of contemporaries. This work was carried out mainly by analyzing Manchurian pop material released since 1937.

To see an unique aspects of pop music, we have to capture the curvature of existence that it coexists with propaganda mechanism. This gap shows a ‘contradictory zones’ that the existence of contemporary do not fully agree with the cultural policy of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showing that it can’t be homogenized as a propaganda mechanism.

In that popular music is the genre that it holds a myriad of human emotions, it is closed to an appearance of Manchuria which a view from above or a statistics as a whole can not embrace. In this process, it is not important that pop music does not matter how much reflects an integrity of existence. When we go by the path of pop music, we would know that the memories of the Manchurian is close to collage composed of pieces. The ‘emotional’ made a memory of Manchuria as a piece of collage, travelling through a vague image of a memory. The reason to think beyond the superficial phenomenon through collage is thanks to that the emotion had detected whether the ‘other place’ just reached is truly heterotopia.

Key words : Manchuria, popular song, emotion, heterotopia, propaganda, existence, sadness, ethics, sympathy, communal sensitivity